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

양 영 자

(경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 tze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10개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자료는 그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Mayring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민 초기의 가치관은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한편, 이민 초기의 정체성은 단일지역적 정체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초지역적, 초국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독한인1세대(여성), 노동이민, 혼성성, 혼성가치관, 혼성정체성, 초국가주의, 생애사 연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가 간 이동을 통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40여년 이상을 이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¹⁾은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 감정, 즉 가치관²⁾을 추구하며 생활했고, 또 현재 생활하고 있는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 2009-332 - B00306)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은 한국과 독일 간 협의에 의해 '초빙노동자(GastarbeiterInnen)'로서 독일로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서 규정하며 생활했고, 또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즉 이들은 어떠한 정체성³⁾에 따라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 이러한 이민자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국제이민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출민(Emigranten)은 물론 이입민(Immigranten)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거주국이나 출신국 중 어느 한 쪽 국가에 귀속시킨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찾으려는 민족국가적(national)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거주국이나 출신국 중 적어도 어느 한 국가에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라는 '타자성'이 부각되었고, 혹은 심지어는 양 국 모두에서 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중적 비통합의 딜레마에 빠진 객체'로까지 대상화되었다(Kaiser, 2006: 29-36). 즉 이민 속에 내재된 위기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행위주체성(agency)'마저 간과한 편협성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초국가적(transnational) 관점에 따른 이민자들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은 이민 속에 내재된 이중성, 즉 위기뿐만 아니라 기회의 요인에까지도 주목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민족국가적 관점에 따른 편협성을 해소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겠다. 초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로 특징되는 후기현대의 이민자들은 국경선으로 구분된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세계 사이인 '초국가적 사회적 필드(transnational social fields)'(Glick-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2; Faist, 1998; Pries, 2003; Kaiser, 2006: 30-31; 재인용)에 위치해있는 '초이민자들(Transmigranten)'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은 어느 하나의 국가적 공간에 고정된 것이

떠난, 일명 '파독간호사들'을 일컫는다. 당시 한국정부는 1961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산업생산을 위한 외국자본의 도입을 절실히 필요로 한 상태였다. 한편,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독일은 생산분야에 노동력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분야의 노동력부족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 인력의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독일은 차관을 전제로 한 인력수출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고,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제안을 차관문제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한독 간 협의를 통한 고용계약으로 간호사들이 독일로 떠났는데, 그 이전에 민간 주선에 의해 파독된 간호사들까지 합친 수는 10,723명에 달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53). 그런데 이들 중 귀국하거나 유럽이나 북미 등을 통해 3각 이민(triangle migration)을 떠난 사람들이 각각 40%, 그리고 본 연구주체를 처럼 독일에 잔류한 사람들이 20%(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46)에 달했다.

- 2) 가치관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나 집단 혹은 한 사회에 의해 유지되는 특성, 이상, 신념, 관계 등에 대한 관념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서, 문화의 내적 통합원리로 작용한다(Wikipedia, 2010). 그런데 문화비교학적으로 볼 때, 동양은 집합주의(Kollektivismus)가, 그리고 서양은 개인주의(Individualismus)가 각각의 문화권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이동렬, 1998). 그러나 양 문화권에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각 문화권의 구성원들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지양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양 문화권 출신으로서 서양 문화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 연구주체들과 같은 이민자들의 경우, 이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 하겠다.
- 3) 정체성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분하고 특징짓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질을 총칭하는 개념(이인정·최혜경, 2010: 113-115)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은 종족 혹은 민족, 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개념이다(박준규, 2002: 300-301).

아니라, '초국가적 간공간(transnationaler Zwischenraum)'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이들은 어느 한 국가에만 귀속되는 존재가 아닌, 양 국가 모두에 귀속되는 동시에 탈귀속되기도 하는 초국가적 간공간에 위치해 있는 초이민자들로서, '불박인' 것이 아닌 '유목적', '초국가적', '다중적', '혼성적(hybrid)'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구성해가고 있는 독자적인 이민주체들이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 또한 초이민자들이라는 '선이해(Vorverständnis)'(Mayring, 2002: 29-30)로부터 출발하여, 이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구성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은 이민생활과정에서 (비)연속성을 보이고 있는지, 초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접근을 요구하는 바, '시간상 연속적으로 자리매김된 집적된 총화'(Schütze, 1983: von Felden, 2003: 양영자, 2009)로서의 '과정구조들'(Schütze, 1983)'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분석을 할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럼으로써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재외한인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들은 부재한 반면, 이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긴 이민역사를 갖고 있고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의 한인들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이민역사를 갖고 있고 거주자 수 또한 3만 여명에 불과한 재독한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러한 연구주체 간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에 제한시킨 분석을 통해,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 내 거주국 간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의 관계성이 낮은 다수거주국 한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개괄적인 분석을 하고, 본 연구와의 관계성이 높은 재독한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함으로써 대응하고자 한다.

다수거주국이민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한 문헌연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크게 거주국사회로의 통합과정을 민족정체성과 관련시켜 민족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한 흐름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한 흐름으로 나뉜다. 전자에 속하는 흐름에서는 거주국사회로의 통합과정을 민족정체성과 관련시켜 분석하는데, 해당 개별사례국가에 제한시켜 분석(이종득, 2003; 최영호, 2008)하기도 하고, 여러 국가와 비교검토(윤인진, 2003)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러 세대를 거치는 이민과정에서 거주국사회로의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국적과 정체성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른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고유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

계를 보인다. 한편, 후자에 속하는 흐름(권숙인, 2000; 박준규, 2002, 2003; 전형권, 2006, 2007, 2008; 이채문, 2008)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초국가적 경계에 위치한 디아스포라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유목적 정체성’, ‘제 3의 길’, ‘초국가적 정체성’, ‘다중정체성’이라는 초이민자들의 ‘변증법적 주체성(dialectic agency, 박준규, 2003)’을 환기시켜 주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소수거주국이민자들에 해당되는 재독한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상술한 두 연구 흐름으로 나뉜다. 민족국가적 관점에 의한 연구로는 오수성·손승남·김양현(1998)의 논문 “재독 한인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독일인의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자서전적 구술면접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체성혼란, 가치갈등 그리고 가정문제 등은 부모들의 구시대적 사고와 태도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 수평적 가치관의 인정, 다문화적 인성의 함양 등을 통한 올바른 자아와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즉 이민 2세대들의 내부자적 관점에 의해 도출된 문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from Below)’(Smith and Guarnizo, 1998)⁴⁾에 일면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독일인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진단을 내리고자 했던 점은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위기요인으로서의 천착 등의 한계를 노출시킨 기존의 민족국가적 연구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수자(2006)의 논문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에 한 단계 더 근접한 연구결과라 하겠다. 즉 그는 출신국과 거주국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독한인여성들에게서는 주체성이 발휘되는 문화혼성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혼성성이 발현되는 데에는 출신국의 문화, 산업화정도, 이주목적 및 거주국의 관용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생애사적 기술을 활용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문화혼성성의 발현과정은 간과된 채 제시되었고, 문화혼성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특성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은 주변부로 밀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기현대 이민자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적 관점에 의해 분석·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초이민자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구성되고 있는지,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생애사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4) Glick-Schiller, Basch 그리고 Blanc-Szanton(1992: ix, 2)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이동성, 항구적 순환의 견고화, 다국가적 위치 등이 초국가주의의 특징이라고 하였는데, Smith와 Guarnizo (1998)는 이러한 초국가주의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현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송금, 편지, 전화, 친인척 초청, 위성방송 등을 통해 출신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주국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며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초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글로벌시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발전되며,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도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과의 인터뷰는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autobiographisch-narratives Interview)’ 방법에 따라, 2009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에 걸친 독일 체류를 통해 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 독일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의 4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들로서, 한인가정과 한독가정 출신을 각각 5명으로 하였다. 인터뷰대상자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북부 도시 거주자들 중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인터뷰에 동의한 여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추천에 따라 중부와 남부로 확대시켜 가는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에 전화상으로 연구목적과 인터뷰 방법을 설명하여 인터뷰 동의를 받았고, 인터뷰 실시시 재차 이를 설명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민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이야기의 언어는 혼성성에 대한 선이해에 의해 인터뷰대상자들의 편의에 따라 한국어나 독일어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민경험이나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이민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게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인터뷰를 잠정적으로 종료시켰다. 이후 의미구조가 불명확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한 다음, 더 이상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시켰다. 이러한 인터뷰는 짧게는 대략 2시간부터 길게는 3시간 20분까지 소요되었다.

2) 자료분석

인터뷰자료는 Schütze(1983: 283-285)의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분석과 Mayring (2002: 114-121)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Inhaltsanalyse)’ 방법을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필사단계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가 섞인 이야기 내용을 웃음, 한숨 등과 같은 표정과 함께 텍스트화 하였다. 둘째, 요약단계에서는 핵심적인 텍스트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민사적 진행과정구조’⁵⁾에 주목한 요약을 하였다. 셋째, 의미부여단계에서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나 문장들을 찾아내어 ‘이민사주체’⁶⁾가 부여한 주관적인 의미들을 ‘상호주관성’에 의

5) Schütze(1983; 1984; 1987; 2006)는 모든 사람의 이력에는 ‘행위모형’, ‘제도적 진행유형’, ‘진행곡선’, ‘변천과정’ 등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양영자,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이민사적 진행과정구조’는 이민사에 나타난 진행과정구조라는 의미로서, Schütze의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라는 개념으로부터 차용된 것임을 밝힌다.

6) 이민사주체도 이민사의 구술자에 주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애사의 구술자에 주체성을 부여하기 위해 Schütze(1983: 283-285)가 고안·사용한 생애사주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

거해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화단계에서는 가치관과 정체성의 양상 및 그 변화과정을 수렴하여 특정 범주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다섯째, 비교분석단계에서는 개별사례 분석결과들을 ‘극소비교의 원칙’과 ‘극대비교의 원칙’에 따라 대조시킴으로써,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과 관련한 공통된 구조들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컨트롤단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질적 연구자 2명을 비롯한 총 3명의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분석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4. 연구결과

1) 이민사주체의 일반적 특성

〈표 1〉 이민사주체의 일반적 특성

이민사주체	출생연도 (배우자)	인터뷰시연령	과도연도 (배우자)	결혼연도 및 상태 (배우자)	학력 및 간호교육 여부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민족성 생존 여부	주거 및 거 주 상황	국적, (취득 연도)	(전)직업 (배우자)	퇴직 여 부 및 (연도)
A	1946 (1945)	63	1967	1973. 초혼	고졸, 독 일간호학 교졸	1남5녀 중장녀	1남(고교 교사) 1녀 (간호사)	한인, 생존	아파트 소유, 부부단독 가구	전가족 독일	간호사(산 업노동자, 자영업, 간 병인)	퇴직 (2002)
B	1947	62	1967	무연급, 재혼	고졸, 독 일간호학 교졸	4남2녀	무연급	독일인, 생존	하우스 소유, 부부단독 가구	전가족독 일	간호사(스 포츠인)	퇴직 (2008)
C	1947	62	1967 (1977)	1979. 초혼 (재혼)	고졸, 독 일간호학 교졸	1남4녀 중막내	1남(회사 원) 1녀 (회사원) (계녀)	한인, 생존	하우스 소유, 부부단독 가구	전가족 독일	간호사(산 업노동자)	퇴직 (2002)
D	1949	60	1971 (1974)	1977. 초혼 (재혼)	중졸, 간 호원양성 소졸	4남3녀 중넷째, 장녀	1남(계자, 회사원) 1 녀(계녀, 방사전기 사), 1녀 (회사원)	한인, 생존	아파트 소유, 부부단독 가구	전가족 독일 (1989)	간호사(산 업노동자, 간병인)	퇴직 (2008)
E	1952	57	1975	1980 (초혼)	간호대졸	2남2녀 중차녀	1남(고재 학) 1녀 (변호사)	독일인, 생존	하우스 소유	전가족독 일	간호사 (의사)	결혼 이 후 퇴직 (1981)
F	1946 (1945)	62	1967 (1970)	1970 (초혼)	고졸, 독 일간호학 교졸	무연급	2남(변호 사, 회사 원) 1녀 (회사원)	한인, 생존	아파트 임대, 부부단독 가구	한국(전 자녀는독 일)	간호사 (자영업)	퇴직 (2006)
G	1952 (1947)	57	1973	1976 (초혼)	간호고졸	6형제 중넷째	2남(의사, 대학생)	한인, 생존	아파트 소유, 부부단독 가구	한국(장 차만 독 일)	간호사 (자영업)	퇴직 (무연급)
H	1946 (1940)	63	1967	1975 (초혼)	고졸, 독 일간호학 교졸	2남3녀 중장녀	1남(스포 츠매니저)	독일인, 사망 (2009)	하우스 소유, 독거	전가족독 일	간호사(산 업노동자)	퇴직 (무연급)
I	1951	58	1974	무연급 (초혼)	간호대졸	2남3녀 중차녀	2녀(대학 생)	독일인, 생존	하우스 소유, 부부단독 가구	전가족 독일	간호사 (공무원)	현직
J	1947 (1954)	62	1971	1977 (초혼)	간호대졸	무연급	2남(의사, 회사원)	독일인, 생존	하우스 소유, 정예인차남 과의동거	전가족독 일	간호사(대 기업간부)	결혼 이 후 퇴직 (1982)

본 이민사주체들은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42년간의 이민생활을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전(현)직 간호사들인데,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나 간호고등학교, 간호대를 졸업한 고학력자들이다. 그리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독일국적 취득자인데, 자녀들도 대학생인 1명의 아들만을 제외하고는 마찬가지로 모두 독일국적 취득자이다. 또한 자녀들은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3명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 의사, 화이트칼라 등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데,⁷⁾ 그중 고등학생 1명과 장애인 1명만이 부모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자녀는 모두 결혼 여부와는 별개로 독립된 주거 및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주거상황을 보면, 대부분 정원이 딸린 하우스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사별한 1명만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부단독가구를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퇴직하여 전업주부가 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5년 이상 간호사로서 노동이민생활을 하였는데, 그중 1명만이 현직에 있고 나머지 모두는 퇴직에 들어간 상태에 있다.

2)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

재독한인1세대 여성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가치관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체성은 지역과 국가 귀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가치관은 이민 후는 물론 이민 전에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된 혼성성을 보이는데, 그 조합은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성으로부터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정체성은 이민 초기에는 단일성을 보이는데, 이민생활과정을 거치면서 혼성성을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는 결혼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자녀의 성장 이후 등의 특정한 생애주기가 전환점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민생활에 나타난 이러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상술한 생애주기에 따라 재구성하고자 한다.

(1) 결혼 이전의 이민생활과정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

결혼 이전의 이민생활에서는 집단주의가 중심적이고 개인주의는 주변적인 조합 양상을 띤 혼성가치관이 나타난다. 한편, 정체성은 지역적으로 고향에 고정된 단일지역성을 띤다.

①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

결혼 이전의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은 노동이민의 동기, 초기 노동이민생활의 목적,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방식에 내재되어 있다. 이에 먼저 노동이민 동기를 분석하면, 부모의 가족부양책임을

7) 일반적으로 재독한인2세는 1세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독일사회에 통합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이들의 교육수준과 진출한 직업분야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대학자격시험인 Abitur를 마쳤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독일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60%인 점, 그리고 특히 의학과 법학, 경영학을 전공하여 의사나 변호사, 화이트칼라 분야로 진출한 자녀들이 많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47).

분담하기 위한 가족우선적인 동기가 작용하여 노동이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주의 중심적 가치관이 노동이민의 동기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동생이 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라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하잖아.(E)” “물론 젊었을 때 외국구경도 있지만, 첫째는 다들 거의가 돈이었어요, 또 보통 보면은 동생들 공부시켜야 됐었고, 또 집안 살림을 도와야 됐었기 때문에.(G)” “막내 동생이, 사실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아픈 관계로, (...) 사실 그 그 애 학비,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왔거든요.(I)”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학진학과 같은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 등 개인생활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동기도 부분적으로는 작용한 것으로, ‘내가 중심인 개인주의적 가치관도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 얼마나 그 당시, 알프스 소녀, 뭐 얼마나! 환상적이지! (...) 유럽 뭐 얼마나! 그 뭐 신부님이 하시는, 간호 학생 모집한다 하니까 우리는 간호 대학인줄 알고 왔지.(C)” “뭐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는데, 아이, 독일이라도 가보자. 그냥 뭐 저 조건도 모르고 막 몰랐지. 몰랐지만 지금 수녀님들이, 독일 수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3년 간호학교, 3년 배우면 된다, 3년 계약으로.(F)”

즉 이러한 가족우선적 및 개인적인 이민동기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면, 집단주의 중심적, 개인주의 주변적 혼성가치관은 가족 내·외에 만연한 수직적인 집단주의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으로 형성되었던 것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차별적인 교육·문화 환경은 남성 형제들을 위한 부모의 교육 부담을 분담하는 희생자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작용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독자적인 생활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노동이민에서 찾으려 하는 반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이는 이민 전부터 이러한 집합주의 중심적, 개인주의 주변적 혼성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민생활의 목적을 분석하면, 가족부양이 목적화된 노동이민생활⁸⁾ 속에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이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송금액이 높을수록 자부심을 더 가지는 송금 위주의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을 우선시하는 집합주의 중심적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한 달 생활비 뭐 한 100유로, 우표 값, 편지 값 하나도 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한국에 많이 보내는 게, 한국에 많이 보내는 게 서로 다 자랑이었어요, ‘얼마 보내?’ 그러니까 다들 진짜 착한 딸들이었어요.(G)”

그러나 이러한 가족부양이 목적화된 노동이민생활이 가족을 위한 희생만을 의미하는 객체화된 삶

8) 실제로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이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에 보낸 송금액은 총 101,530천 달러에 달했는데, 1965년부터 1967년의 경우에는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53).

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의한 헌신이었고, 나아가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인생활프로젝트적 성격을 띤 주체적 삶을 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개인주의적 가치관도 혼재된 혼성가치관에 따른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요.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은 예, 그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거기다 돈을 갖다 보내주고, 우리 동생한테 보내줬어도 동생이 노력을 안했으면 그건 헛일 이에요. (...) 뭔가(존재감을) nachweisen(증명)을 해야 하진 않겠어요? (...) 그거를 해줌으로써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를 받으라고 그거를 갖다가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좋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족하고.(I)”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의 활용방식을 분석하면, 모국인 위주의 집단과 취미생활을 하는 방식 속에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모국인들과 함께 보냄으로써 가족과 유사한 집단에 속하는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 점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병원에 제한된 노동이민의 경험 영역을 여행을 통해 확장시키거나, 노동이민자로서의 유능성을 외국어 습득을 통해 확보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각종 취미활동 등을 통해 향상시키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주의적 가치관도 주변적으로는 혼재되어 있는 혼성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니까 (기숙사에) 몇 명이 짝 살았지. 그니까 인제 그래가지고 같이 밥해서 먹고, München(뮌헨)은 큰 도시기 때문에 Schwabing(슈바빙)이니 어디니, 어디 돌아다니고, 볼 것도 많고 그러잖아?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E)” “말도 안통하고 음식도, 그냥 그래서 우리는 Katholik(천주교) 신자들이 다 같이 왔잖아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향수도 해결이 되고, 서로 위하면서 10명 인제 뽕뽕 뭉쳐가지고 그랬는데.(F)” “방학 내내 집에, (독일)애들은 집에 가는데, 나는 어딘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스페인의 말로르카 섬) 갔지. 또 내 친구하고는 Paris(파리) 여행도 가고, 여행 많이 갔어, 나는, 유럽 여행 그 당시 많이 갔어.(C)” “여기 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무슨 저기 저녁에 밤중에 하는 거, Volkshochschule(개방대학)에서 하는 거니, 운전면허니, Tanzkurs(댄스코스)니 뭐니 뭐니, 아이고, 뭐 많이 시작했어요, 저기 할 때 재봉하는 거 있죠, Schneiderei(재봉) 재단하는 거... 그것도 하고 (...) 또 저기 Englisch(영어) 공부도 하구, 기타도 좀 배우구, 또 저기 뭐야 그 당시 Karate(가라데, 일본권법) 그 뭐.(B)” “독일 사람들, 할머니들도, 애들도 자전거 타고 얼마나 많이 다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전거타고 다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홉해가 자전거를 배우기를 시작했어.(G)”

이처럼 결혼 이전의 노동이민생활에서는 집단주의는 중심적이나 개인주의는 주변적인 혼성가치관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혼성가치관은 노동이민의 동기, 초기 노동이민생활의 목적, 그리고 여가시간의 활용방식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단일지역적 정체성

결혼 이전의 노동이민생활에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한 이민생활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체성보다는 지

역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이들의 결혼 이전의 노동이민생활에서는 고향 지역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단일정체성은 임시적인 노동이민생활을 한 초빙노동자로서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빙노동자로서의 삶은 직업생활과 여가생활로 양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직업생활을 분석하면, 근무지와 숙소를 오가는 초빙노동자로서의 임시적인 노동이민생활 속에 이러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초빙노동자로서 계약기간에 한정된 노동이민생활이 만료되면 귀국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이들의 귀국 계획 속에는 고향 지역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귀국' 계획과 관련하여 단일국가적이 아닌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이들이 '귀국'을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공동체로서의 국가(Anderson, 1992: 19)로의 돌아감'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살고 있는 고향이 위치한 실제에 기반을 둔 지역으로의 돌아감'으로 의미부여한 때문이다.

“옛날에는 비행기 표를 5년 있어야 만이 여기서 인제 그 Vorschuss(선금)를 여기서 했으니까, 비행기 표를. (...) 집이 좋아서, 아, 고향이 그리워서.(A)” “그래도 독일, 김포공항 떠날 때는, 아이고 부모님들 다 나오고 했잖아요. 외국 가는 게 참 어려울 때라. 그래서 ‘아이구, 인제 가면 언제 보냐!’ 완전 생이별, 아이구 정말, ‘아이구 가서 언제 오겠나!’ 3년이라 했지만은. 근데 솔직히 여기 살면서... (...) (세월이) 참 빨리 갔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기다린 거죠.(F)” “처음에는 3년 되면 간다고 방마다 그 넝쿨타고 올라가는 거 Efeu(담쟁이 넝쿨)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키웠어요. 저게 이제 한 바퀴 돌면 다 한국 간다고.(G)”

이어 여가생활을 분석하면, 한국인 위주의 집단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에서도 이러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함축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임시적인 노동이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한국인들과 보내며 일체감을 경험하는데, 바로 이러한 동족인 위주의 여가시간 활용방법에서도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도 위의 '귀국' 계획과 관련한 분석에서처럼, 이들이 지칭한 한국인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학교 사람들'처럼 '동일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 '지역'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근데 전화가 왔어 ‘지금 뭣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부엌에서 ‘우리 L하고 나하고 새우, 새우 볶아갖고 그거 먹고 밥 먹고 앉았어’ 그랬더니 ‘그르른 시간 있겠네?’ ‘내가 M아빠 보낼 테니까 우리 집 와서, 놀고 먹고 자고 그러고 가.’ ‘그러’ 그랬어요.(D)” “Milchreis(우유쌀) 사다가 그냥 삶아가지고 순 다마네기 있잖아요? 그런 거, 닭 같은 거 싸니까. 그런 거 사다가 뭐 음식해서. 인제 좀 가지고 온 양념에다가. 아이고 세상모르고 누가 마늘을 가져왔는데. 마늘 잔뜩 넣고(웃음) 닭도리탕을 해서 먹고.(G)”

이처럼 결혼 이전의 이민생활에 나타난 정체성은 고향 지역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주를 이루는데, 임시적인 노동이민생활을 한 초빙노동자로서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

다.

그렇다면 결혼 이전의 노동이민생활에 나타난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과 단일지역적 정체성은 결혼 이후의 이민생활과정에서는 어떻게 발전되어 간 것일까?

(2) 결혼 이후의 이민생활과정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

결혼 이전의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은 결혼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대등한 조합을 이루는 수준에 이르고, 결혼 이후에는 이러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점차 강화된다. 그리고 단일지역적 정체성은 독일 지역으로도 확장된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된다.

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 및 강화

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

결혼 시점에서 이루어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은 결혼상대자의 선택주체, 결혼방식, 그리고 결혼상대자의 선택기준 등에 함축된 결혼관과 관련한 분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먼저 결혼상대자의 선택주체와 결혼방식에 나타난 결혼관을 분석하면, 동시대 한국 여성들의 집단주의적 결혼관과는 차이가 나는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민생활과정에서 독일적으로 인식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내재화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의 결혼과정에서는 부모가 아닌 자신의 뜻에 따른 주체적인 결혼상대자 선택과,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결혼, 소위 결혼적령기로 간주된 연령대를 벗어난 결혼 시점에 대한 독자적인 관점 등 개인주의적 결혼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집합주의 중심적 가치관은 급속히 약화된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확고한 자리를 굳히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거기서 근무할 때 우리 아빠를 알은 거지. Uni-Klinik(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아빠가 Internist(내과의)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병원으로 인제 전문의사자격증 그거 딸려고, Uni-Klinik으로 들어온 거야. (...) 우리 아빠를 사겨가지고 한 1년인가 사겼나? 그러고 나서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 내가 정말 독일에 와서 평생을 살을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하고 결혼을 하는데.(E)” “내가 (결혼을 독일생활한 지) 2년 반 만에 했나? (...) 엄마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니 나오면 시집 보낼라고 (송금한 돈으로) 껌돈을 넣었대. 근데 뭐 여기서 안가니까, 뭐 껌돈 다 찾아서 어디 썼겠지. 그래서 나는 제일 효녀야. 돈을 하나도 안들고 시집갔다고. 자기네들 다 써버리고, 제일 효녀라 하더라고(웃음).(G)” “근데 여기서 나이 먹는 걸 몰라요. 왜냐면 여기 노처녀들도 많고, 내가 어린 것 같애. 나이가. 근데 한국 가보면 어린 조카들이 큰걸 보면은, 그걸 보면은, ‘아하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렇지. 아, 그래도 빨리 결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히 여기 외국이니까. 나 일 재밌게 했어요. 진짜로.(C)”

이러 결혼상대자의 선택기준을 분석하면, 문화인지적(kulturbewusst) 기준에 따른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이민생활과정에서 내재화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원활한 남성을 이상적인 결혼상대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독일 내 남성들, 예컨대 독일 내 한국 남성들이나 독일 남성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문화인지적 기준에 따른 결혼상대자 선택에서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만 있었던 한국 남자하고, 유럽에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해왔던 게, 이게 뭐가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국사람, 남자라도 유럽 좀, 무슨 뭐가 좀 먹은 사람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C)” “근데 참 사람이, 말은 1년, 2년, 3년이다 그러는데, 5년 만에 (한국에) 나가니까, 이 (한국에서 맞선 본 남자의 한국적)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좀 눈에 거실리는 것이 많다, 이 거야.(D)”

한편,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대등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획한 영구귀국을 결혼으로 인해 유보한 점, 근무가 없는 대부분의 주말을 모국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보낸 점 등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이들이 자신들의 영구귀국 계획을 거주국에서의 결혼으로 인해 유보한 것은 원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생활프로젝트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생활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여전히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혼 전처럼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모국인들과 보내는 것도 민족적 집단 속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행기 표를 5년 있어야 만이 여기서 인제 그 Vorschuss(선금)를 여기서 했으니까 비행기 표를, 그래갖고 저기 여기 간호학교 졸업 맞고 아, 맞고서 인제 저기 우연히 또 애네 아빠를 만나서.(A)” “비행기 표 끊어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인연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만나고, (...) 이 양반은 독일 온지가 두 달 밖에 안됐어요, 70년 6월에 오고 8월 달에 만났으니까, 저는 9월 달 졸업하는데 한 달 전에 만났거든요.(F)” “저는 3년 채 안 되서, 아유, 가만 놔두나요? (...) 이 사람이 나를 시집을 못 보내서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웃음), 아이구,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아이구, 안 된다고, 한국 가야 됐더니, (...) 소개하는 바람에 어찌어찌 해갖고, 결혼을 하게 됐네.(G)” “직장생활할 때 애들 있을 때는, 뭐 이거는 계획이고 지지고 볶고가 아니지, 막 착, 착, 착, 착 뭐 하고 바로, (...) 내가 애들 둘에다가 손님(주로 한국인들) 얼마나 (많이) 왔어! (...) 그것도 야간근무, 잠도 한 2, 3시간 자고, 응?(C)”

이로써 결혼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약화되는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오히려 그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대칭적인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결혼상대자의 선택주체와 결혼방식, 그리고 결혼상대자의 선택기준 등에 함축된 결혼관과 관련시킨 분석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대칭적인 혼성가치관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결혼 이후의 이민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의 강화

결혼 이후에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⁹⁾이 강화되어 가는데, 그 양상에 있어서는 직장생활의 유지 여부,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결혼 이후의 이민생활은 한편으로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킨 경우와 가정만을 택일한 경우로 양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의 책임분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이러한 대칭적 혼성가치관의 강화 양상은 이하에서 논하게 될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자녀교육관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칭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세 유형과는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먼저 대칭적 혼성가치관의 강화 양상을 상술한 세 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전과 동일하게 전일제 주간근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나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는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경우로 대조를 이루는 유형이다.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위탁모(Pflegemutter)¹⁰⁾와 같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 나가는데, 이는 직장생활 방식이 아닌 가정생활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개인생활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일제 주간근무의 지속적인 유지가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 목적만이 아니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와 분담하기 위한 가족 우선적 목적 하에서도 이루어진 점은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상호 긴장을 이루며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Mutterschutz(출산휴가) 끝나서 저, 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그때는 그 Pflegemutter(양육모)를 쫘었어요. 애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나중에는 밤번으로 들어가고, 반달 밤번? 그러면 반달 쉬잖아요, 반달. 제가 일할 때는 애를 이제 독일집에 맡기고 반달 쉴 때는 애를 데리고 오고 (...) 처음에 이제 둘이 막 교대로 밤번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젠 뭐 사람이 다 죽겠어. 그래서 마, 차라리 그러곤 완전히 잠이라도 제대로 잔다. 그리고 이제 애를 완전히 맡겼죠.(G)”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는 낮은 반면,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책임분담 정도는 매우 높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본 이민사주체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고정적인 성역할이 전도되는 속에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켜 나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대다수가 갖고 있는 라이프스타일과는 다른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한 이민생활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역할이 전

9) 이하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은 지면상 필요시 대칭적 혼성가치관으로 칭한다.

10) 위탁모는 친부모의 양육책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지속적으로 대리 수행하는 위탁가정(Pflegefamilie)의 모를 말한다.

도되는 속에 이루어진 직장가 가정의 양립 방식 속에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준비물은 엄마(부인)가 해놓지만은 Haushalt(살림)는 아빠(남편)가 많이 한 편이죠(부인). 내 생각은 즐겁게 Haushalt 했어. 인자 마누라가 과장(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임)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시간 많은 사람이 좀 돌봐야죠(남편). 남자의 Stolz(자부심)도 있잖아요. 한국사람들 여자가 번다는 거(부인). 내가 뭐 개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남편).(D)11)”

둘째, 결혼 전과 동일하게 전일제 근무를 지속하나 근무시간대를 주간으로부터 야간으로 전환시키는데,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도 낮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낮은 경제적 기여 및 결혼 이후 직면한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의 문제로 근무시간대 변경이라는 전략을 통해 직장가 가정을 양립시켜 나가는데, 직장생활의 유지를 통해 가족 부양자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점, 자녀양육과 교육에는 유리하나 승진기회는 희박한 야간 시간대로 변경하여 근무한 점은 대칭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니까 애 봐주는 사람 데려가 줬지. 애 땀졌지, 미안해. 그게 난 맘에 걸려. 안 좋아. (...) 그러니까 OP-Dienst(수술실 근무)는 그게 좋은 게, 8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한다고 (...) N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야간근무 갔지, Nachtdienst(야간근무)는. 밤에는, 밤에는 우리 아빠가 있지, 자니까. 그리고 야간근무하면서 낮에는 내가 봐주잖아. (...) Gymnasium(고등학교) 다닐 때 까지.(C)” “나는 낮에 애 맡길 때도 없는데. 그래갖고는 애를 큰 애 낳고 밤 근무를 들어갔지만. 애들 둘, 그 다음에 둘도 밤 근무 하면서 다 임신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 광산, 그 혼자 있을 때는 굴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날) 만나고 저기, 큰애 낳고 하니 도저히, 낳을 때쯤 되니까 굴속에 못 들어가겠대. 그래갖고는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근무를 계속 하긴 했지만은. (주간근무) 못하고 그래도 39년. 아, 그 때 왜 힘들었냐 하면은 어, 저기 처음에는 애를 키우면서 그냥 밤 근무를 했잖아요. 이 양반이 인제 사업한다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니까.(F)” “양로원이 왜 조건이 좋으면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양로원, 옛날에는 덜 조금, 힘이 덜 들었어. 환자들도 얼마 없었고, 여기 Stadt(시)에 eigener Altenheim(시립 양로원)이 있어갖고 조건이 좋아서 밤번만 했어. 왜냐하면은 밤 근무하면은, 1주 일하고 1주일 놓고, 그럼 살림하기도 좋지, 시간이 많으니까. (...) 얘기가 2살 때부터 얘기가 클 때까지, 거의 한 12살 때까지.(H)”

또한 상극적인 근무태도, 예컨대 가정을 위해 야간근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승진의 기회가 제한당하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는가 하면, 동시에 직장을 위해 가정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한 점에서도 이러한 대칭적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신이 없지. 눈코 뜰 새 없지. 야간근무 해가면서, 나는 OP(수술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쩔 때

11) 10개의 인터뷰 중 3개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한 인터뷰이다. 2개의 인터뷰(C, F)는 전체가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1개의 인터뷰(D)는 인터뷰 후에 배우자의 참여로 따로 행해졌다.

는 버스타고 집에 오면은, 우리 아빠가 ‘당신, 도로 가야 돼. 전화 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돌아갈 때 있었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걸 몰랐어.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그리고 우리 집 이것도(살림하는 것도) 어려운 걸 모르고 있었어. 재밌게 지냈어. 내 40이 넘었을 텐데.(C)”

셋째, 야간근무로 전환시키고 근무시간도 급격하게 축소시키는데,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는 낮으나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직업생활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근무시간대 변경과 근무량의 대폭적 축소처럼 직장생활 방식을 급격히 수정하는 전략을 통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은 지속적으로 유지시킨 점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강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정생활이 아닌 직장생활 방식을 급격히 수정하고 있는 점은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때까지는 이 병원이 제 생활에서, 오히려 가정보다도 Beruf(직장)가 더 중요했죠. (...) 애를 배우 노니까 그런 저기는 없더구만요. 그런 게 갑자기 사그라지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정이고, 애를 키워야 되겠다. 고런 식으로 변해져요. (...) 저기 O Krankenhaus(병원)라고 P에서 큰 병원이었어요. 글로 떨어져갔고서는 거기가 제 생활의 전부였어요. 근데 애를 배자마자 그거 모성애라는 게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치가 않아요. (...) 당장 (집에서 가까운) 딱 병원으로 옮기자 해갖 구선 O Krankenhaus로 옮겨버리고, 그 당시에 인제 그러구나서는 제가 reduzieren(줄였죠)을 했죠, 50%로.(I)”

넷째,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가정생활에 전념하는데,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는 낮지만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는 가장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제력에 힘입어 결혼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장생활을 종결하고 가정생활에만 전념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는데, 이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아직 지체되어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유형에서 오히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지체된 개인주의적 부분을 보완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이 유형에서도 강화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즉 이들은 독일인 배우자의 영향으로 자녀 개인의 자주성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양육과 교육을 시키는데, 이러한 교육 방식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지체된 개인주의적 부분을 보완해줌으로써, 대칭적 가치관이 형성·강화되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해가지고 81년도에 우리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인제 낳고나서 인제, 그 인제 애기 낳기 조금 전에 Mutterschutz(육아휴직) 들어가잖아? 어, 그때부터 내가 일을 안 하기 시작했지.(E)” “세살 때야. (...) 애를 2년 있다가 낳았나, 놓고, 그때는 (남편이) 박사 과정이었거든. 그리고 나는 밤번을 했어. (...) 15살 땐데, 그냥 애가 일이 막 하고 싶어갖고 난리야. (...) 그 개는 (고등)학생 때 일을 많이 했어요. (...) (공사장에서) 오면은 쓰러져서 자는 거야. (...) 그거를 한 2주를 했나? 3주를 하더니, 그

뒤로는 지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엄마, 그 저기 Baustelle(공사장) 사람들은 얘기 하는 게 다 한정이 되있대. 어, 그래서 나는 그런게 인생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 (...) 그 Kantine(직원식당) 곁에 데 가서 밥 먹잖아? 그러면은 어느 Bauhaus(건축자재백화점)에서 무슨 Handschuhe(장갑)가 싸고, (...) 그런 얘기만 한대. Handschuhe 얘기만 한 대요.(J)'

그런데 이러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내재된 대칭적 혼성가치관은 그 정도나 성립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이 유형 이외에도 모든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이들 대부분은 모국에서 경험한, "지배인 역할"을 하는 부모 중심적 교육방법의 단점과 이민국에서 경험한 "개별화된" 자녀 중심적 교육방법의 장점을 이르게는 자녀의 아동기 때부터, 늦게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 중심적 교육방법으로부터 자녀의 재능과 개성을 발견·발전시키고 자립심을 강화해주는 자녀 중심적 교육방법으로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변화된 교육관 및 방법에서도 상술한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혼냈지, (피아노 학원)에 안 간다고 집에 오면 (피아노) 연습하라. 그게 진짜 한국 엄마들인데. 근데 그런 걸 갖다가 Oma(할머니, 친할머니역할을 한 A의 친구 어머니인 독일 할머니를 일컬음)한테 이르지. 그러면 인제 Oma는 '애들 허기 싫은 거는 그냥 내비둬라.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나는 한국식이었고, Oma 얘기 한 거는 독일식이지. (...) 6학년까지 했었고 그 뒤로는 하기 싫다고, 안한다고 했었어. (...) (나중에 커서) 애들이 오더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Zwingen(강요) 안 해서 감사하다고.(A)"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Interesse(관심)가 많고, 한국어도 배울라고 그래요. 지금은 배우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중요성도 느끼고 (...) 많은 애들이, 말이, '한국 엄마들이 지배인을 한다. 한국 엄마들은. 근데 엄마는 그걸 안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individuell(개인적)로 다 되는 거.(I)'"

이로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결혼 이후에는 강화되어 가는데, 직장생활의 유지 여부, 아동양육과 가사활동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분담 정도 및 경제적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교육관과 방법에서도 이러한 대칭적 혼성가치관이 강화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독일 지역으로도 확장된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②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으로의 초지역적 전환

독일 지역으로 확장된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은 결혼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의 두 가지 경험과 맞물려 형성되고 있다. 이에 먼저 결혼 경험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이중지역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면, 영구귀국 계획이 결혼을 통해 단기적으로 유보됨에 따라 이러한 초지역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최초의 계약기간에 제한된 초빙노동자로서의 이민생활을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연장하게 되고, 이러한 연장된 노동이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영구귀국 계획도 단기적으로 유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경험이 집적되는 과정에서 고향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

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지역으로까지 확장된 초지역적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들어올 때 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셨다고. ‘들어와라, 들어와.’ 하셨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입이 풀리고 귀가 뚫리니까, 좀 보고도 싶고 돈도 벌고도 싶고, 그런 욕심, 뭐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점, 점, 점 한국하고는 점, 점 떨어져. 내가 몇 년, 그렇게 몇 십 년, 몇 십 년 아니지만, 몇 년 여기 유럽에서 생활하니까,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 하니까, 그러고는 싶지 않더라고.(C)” “그래서 ‘아이구, 인제 가면 언제 보냐.’ 완전 생이별. (...) 3년이라 했지만은. (...) 7년 반 만에 들어갔어요, 한국을. 처음 고국방문을. 기가 막혔죠, 사실은. 7년 반 동안 어떻게, 참 빨리 갔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기다린 거죠.(F)”

그리고 이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내재된 이중지역적 정체성을 분석하면, 배우자의 민족귀속성에 따라 조합 양상이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즉 한인 남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에 직면하여 독일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단기적으로 유보한 영구귀국 계획을 장기적으로 유보하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독일 지역으로 확장된 초지역적 정체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중지역적 정체성은 영구귀국계획에서 보듯, 보다 고향에 집중된 조합 양상을 띤다. 반면, 독일인 남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고향방문을 하는 데에 그친 시도만을 하여, 독일 지역에 집중된 조합 양상을 보이는 이중지역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애를 데려다가, 그니까 3살 됐을 때, 완전히 이제 한국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갔지. (...) 갔더니 우리 Q(아들)가 이틀 후에, ‘Wo ist mein Kinderzimmer? Mama.(엄마, 내 방 어디 있어?) Ich möchte nach Hause.(집에 가고 싶어.) Ich will hier nicht bleiben.(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막 그래가지고, 암만해도 안 되겠더라고. (...) 우리가 여기(독일)서 살아야겠다. (...)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내 고향이다, 생각을 했는데, 차츰 차츰 시간이 감으로써 자꾸자꾸 멀어지더라고요, 한국과.(A, 한인가정) “그래서 München이 내 고향 같애. 처음에는 3년 만에, 살다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지. 안 그래?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다 놀러앉아 가지고, 그니까 그래. (딸이 어릴 때 한국에) 더울 때 가가지고 지독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 가가지고 4주가 있었나? 열흘은 병원에 있었나봐. 설사병 나가지고. (...) 우리 애들 크면은 데리고 가지, 어린 애 때는 안 데리고 간다, 그랬지.(E, 한독가정)”

그런데 이처럼 배우자의 민족귀속성에 따라 이중지역적 정체성의 조합 양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배우자 각자의 민족귀속감에 따른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이들의 지역정체성에도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독일인 남성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결혼과 더불어 일찍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독일국적 취득이 이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독일국적은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상징에 머물러있을 뿐, 고향 지역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당시 경우에는요 어, 나름대로 어, 독일국적을 가졌어야지만은 어, 그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할 때도 좋았었고, 그런 편리성도 있었고, 결혼하자마자 했는데, 몇 년 지나서 했지. (...) 물론 여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좋지 한 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갖고서는 ‘내가 무슨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갖고 저,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I)”

이처럼 결혼 이후의 이민생활에서는 고향 지역에 고정된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결혼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의 두 가지 경험과 맞물림으로써,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지역으로까지 확장된 이중지역적 정체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이민생활과정에서는 이러한 대칭적 혼성가치관과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은 어떻게 발전되어 간 것일까?

(3) 자녀성장 이후의 이민생활과정에 나타난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개인주의가 우세한 조합 양상을 띠는데, 퇴직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화되어 개인주의가 중심적인 조합을 이루게 된다. 한편, 초지역적으로 전환된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도 초국가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①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

가.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의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은 직장보다는 가정의 영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생활영역별 차이는 직업적인 변화보다는 가정적인 변화에 더욱 빈번히 직면한 경험과 맞물려 나타난다. 이에 먼저 가정적인 변화와 관련한 경험에 내재된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분석하면, 중·장년기 빈둥지 시기 자녀들의 분리 및 이성교제 경험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다 강화시켜 나간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의 분리 경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면, 중·장년기 빈둥지 시기에 자녀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데, 점차 자녀들의 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면서, 이들의 가치관도 보다 개인주의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애가 Gymnasium(고등학교), 집 나갔을 때(분가해 나갔을 때), 집 나갔을 때. 그러니까 애 20살 정도, 19살 때 Abitur(대학자격시험) 끝나고 (...) 집 나갔을 때,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맘이 아파. 밤에 깨들 방 지나가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파.(C)”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점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루어진 자녀들의 독립적인 생활이 주거적 및 심리적 분리는 물론 경제적 분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본 이민사주체들의 혼란과 갈등도 가중되는데, 이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가치관도 보다 개인주의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맨날 Nein(no)! 하나까 한번은 내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니까. 애들이 자꾸 돈도 달라 하고, 옷도 사 달라 하고, 뭐 옷도 사 달라 하고, 그래야, 좀 막 부모를 졸라야, 좀 뭐가 좀 부모 같은, 뭔가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뭐든지 해준다 해도 ‘Nein! Ich habe selber genug Geld.(아니요, 주실 필요 없어요, 돈 충분히 있어요.)’ 엄마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애들 친구가, 주위들이 다들 그런 애들이라 그런지, 이케 돈 쓰는 것도 아주 sparsam(아껴서) 쓰고(G)”

이처럼 자녀들의 주거적 및 심리적 분리 이외에도 특히 경제적 분리가 가능한 것은 이민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자녀를 통한 경험이 다음과 같이 양가적인 반응으로 표출된 점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치관의 개인주의화가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되도록 ‘행위주체(agent)’로서의 역량을 발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즉 한편으로는 대학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공교육¹²⁾에 대해 자부심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교육에 힘입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대학생활을 유지해가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실감도 보이는 양가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도록 행위주체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 좋은, 복 받은 나라가, 부모 벌이에 따라서 다 대주잖아요, 대학생 그것(생활비)도 다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런 천국이 어디에 있냐고! (...) BAföG(교육축진비)을 500 몇 10 유로 받습니다. Monatlich(매월) 그 받는데, 거기서 방세 250인가 나가요, 그러면 200 한 50정도 남아. 그리고 점심 사 먹는 값, 뭐 한 달에 Mensa(대학식당)에서 사먹는 기 한 100이나 나갈까? 그럼 나머지는 자기 용돈인가 봐요, 근데 애들 이야기 들으니까, 다들 selber(스스로) 해결한다고 하더라고, 그니까 애들이 참 검소하더라고(G)”

이러한 후자의 이성교제 경험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면, 후기 청소년기부터 시작된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직면하여서도 전자의 경우에서처럼,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개인주의적 이성관을 수용하며 자신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다 강화시켜 나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주의 우세적 가치관은 자녀들의 이성관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의 민족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독일인 배우자를 둔 경우에는 개인성이 자녀들의 이성교제를 위한 중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에는 민족성이 그 기준이 되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가치관도 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이성관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민족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이성관이 개인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이성관으로 전환되고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12) 독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공교육 국가이다. 따라서 대학교육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더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축진비(BAföG)는 아르바이트를 통한 자립적인 대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교 다니면서 (독일)남자 친구 사귀니까, 또 남자 친구하고 자꾸 Spanien(스페인) 가고, 어디 가고 이리지.(E, 한독가정)” “독일여학생인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졌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 엄마, 나도 이제 Freundin(여자친구) 하나 있대.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내가 ‘Oh, schön!(멋지구냐!)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 하면서, 어떻게 사귀냐 했더니, 같은 고등학교를 6년을 다녔대요. (...) Lieb나(착하냐)? 그랬더니, lieb고 아주. 괜찮겠냐고, 니가 좋다면, ‘Ok, Mama ist einverstanden!(엄마는 동의해.)’ 그랬다. (...) 자고도 오고 (...) ‘이거 안 된다, 결혼할 사이 같으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약혼하자.’ 그랬더니, ‘아, 엄마, 뭐 살아봐야지, 지켜봐.’ ‘그게 어디 있냐? 그거 택도 안 돼. 한국에는 손만 가도 결혼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 그런 걸 자기(남편)도 생각을 많이 바꿨지. 옛날에는 항상 자리에 있으면 애들보고 너거는 한국여자, 뭐 이런 여자, 뭐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아이고.(G, 한인가정)”

나아가 이러한 개인주의적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성적향상과 정서적 안정 등과 같은 요인을 꼽으며 이성교제의 유용성까지 주장하는 적극적인 이성관을 갖게 되는 변화도 나타나는데, 이 또한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성적도 훨씬 올라가고, 둘이 내기하는 것 같애. (...) (수업) 마치면 뭐 금방 가방 집어던지고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가방 짊어지고 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던지, 그리고 극장도 가고, Theater(오페라극장)가고, 여행가고, 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남자가 말이야, 여자 생기면 공부도 못하고, 그 빠져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G)”

반면, 이처럼 개인주의 우세적 가치관이 자신이 중심인 직장생활 경험보다는 자녀가 중심인 가정생활 경험에서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가족 위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여전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직장 영역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서도 포착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거의 전 이민생활에 걸친 전일제나 반일제 야간근무를 통한 직업생활은 자아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러한 직업과 가정의 양립적인 생활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집단주의적 가치관도 부분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혼성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결혼 이후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대칭적 혼성가치관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직업적인 변화보다는 가정적인 변화에 더욱 빈번히 직면하게 되는 경험을 통해 촉진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이 개인주의 중심적 조합 양상을 띤 혼성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퇴직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은 퇴직 시점에 이르러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나’를 위한 삶의 단계로 규정하며 보내는 퇴직자로서의 노년기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년기는 “개인주의적 독립생활에 적응을 한 삶”의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자녀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따른 갈등의 극복,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노력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먼저 자녀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따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하면, 자녀와의 심리적 분리에 따른 갈등극복은 이성교제관 및 결혼관의 변화에서, 그리고 부모와의 그것은 사별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극복과정 속에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이성교제관과 결혼관의 변화과정에 내재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을 살펴보면, 앞서 분석했던 이성교제관처럼 결혼관도 민족성을 중시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화되는데, 제도(Institution)로서의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자녀들의 개인주의적 결혼관은 물론, 나아가 이민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동거문화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만큼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처럼 개인주의 중심적 가치관이 확고히 자리매김함에 따라, 자녀와의 분리 상황에 직면하면서 갖게 된 갈등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퇴직자로서의 노년기도 자녀들과의 분리를 전제로 한 ‘나를 위한 삶’의 단계로 규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처음에 남의 집에 가면은 저녁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고 한국식으로. (...)그게 안 되더라도, 자고도 오고. (...) ‘이거 안 된다, 결혼할 사이 같으면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약혼하자.’ 그랬더니. ‘아, 엄마, 뭐 살아봐야지, 지켜봐.’ ‘그게 어디 있나? 그거 택도 안돼. 한국에는 손만 가도 결혼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 그런 걸 자기(남편)도 생각을 많이 바꿨지. 옛날에는 항상 자리에 있으면 애들보고 너거는 한국여자, 뭐 이런 여자. 뭐 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아이고.(G)” “R(아들)는 어려서부터 애가 그냥 깨끗하구, 그렇구 잘 치우고, 또 음식 하는데, 애가 또 저기, 저기 또 흥미가 있구.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거 보니까, R가 음식하지. 또 R가 집 같은 거 잘 정돈해놓지. (...) (동거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도 하라고) 너무 그렇게 참견하지 않을려고.(A)” “차라리 결혼을 하던지 약혼을 하던지(민망한 웃음) 뭘 하나 하지. 지금 사귀고 있는 도중에 조금 그렇잖아! 언젠가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는다고, 하고 말했지. 언젠가는 허는데, 애, 학교 졸업 금방 했잖아. 직장 잡았으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그거 해야지 결혼도 한다. 근데 뭐 하이튼 둘이 지금 시작이니까, 인제 뭐 돈 좀 벌고, 뭐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나는 근데 뭐 여기 사람들 그러잖아. 지네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결혼 어째라 저쩌라 뭐(E).” “우리 애들이 와도, 반가운데, 가면 froh(기뻐)야. (...) 집 나갔을 때,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 맘이 아파. 밤에 깨들 방 지나가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집에 온다 그러면은, 가면, 내 가면 ‘Gott sei dank!(다행이야)야.’(C)”

그리고 부모와의 사별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노년기’로서 규정하며 이러한 노년기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모와의 분리에 따른 갈등의 극복과정 속에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주체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암 판정 받았으면, 많이 살면 6개월에서 2년,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못 살 것이다. 또 내가 마지막 효도한다 하고 또 6개월간 살았잖아요, 제가 가서 병간호 했어요. (...)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가 상당히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울증인데 특히 첫째 딸에서 나타나는 Syndrom(증후군)이다. 뭔가 내가 다 해야 되는. 내가 뭔가, 뭔가 도움이, 주위에 도움이 돼야 되는 증후군, 그런 Syndrom이래요. (...) 항상 그렇게 내 주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항상 가르키는 게, 당신은 조금 당신의 Nein(no) 하는 걸 배우래요. Nein! 와,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어떨 때는 좀 몰인정할 정도로 Nein! 잘하고, 뭐, 뭐 하면 안 돼, 나 시간 없어. (...) 내 그걸 연습을 많이 하래요. 그것도 Therapie(치료). 사실은 그게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 같애요. (...) 그녀가 지금은 내 모토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항상 이거 첫째 딸 Syndrom이 항상 나는 하, 안에 quälen(괴로워)하면서 남 어려운데 못 보는 거 있잖아요? 항상 ja(예)하는거. 그걸 없애래요 첫째는. 저가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G)”

또한 퇴직자로서의 노년기를 각종 사회활동과 취미활동을 통해 보냄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속에도 ‘내가 삶의 중심인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여기는 취미 생활을 해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취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요가를 배웠어, 한 25년 넘게. 내가 또 그림을 그려. (...) 또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우리 또 (독일) 친구들이 또 나가서 working하고.(A)” “그림도 그리러 가고, 요가도 하고 뭐 수영도 가끔 1주일에 한 두세 번. 그래도 수영도 가고, 산책도 좀 하고, 뭐 볼일, 시내 볼일, 시장보고, 만날 사람도 좀 만나고, 초대할 사람하고, 이리다 보면은, 또 여행도 좀 자주는 아니지만 우린 예전부터 갔다 왔잖아. 이제 어학코스 할라고, Englisch(영어). 그래야 여행도 좀 하지. (...) (학교도서관) 책을 같이 나가서 Dom Bücherei(돔 서점) 가서 책을 이만큼 사다가 Binden(제본)을 하는 거야. Bücherbinden(책제본), 가르치는데 재밌더라고.(C)” “내가 지금 3년 전부터 Obdachlosenheim(노숙자시설)에 가서 일을 해요. (...) S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지. 거기에 가는데, 그때가 참 즐거워요, 가면은.(J)”

이로써 퇴직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인주의 우세적 혼성가치관이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나’를 위한 삶으로서의 노년기를 보내는 퇴직자로서의 주체적인 삶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중성을 띤 혼성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하고자 한다.

②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의 초지역적, 초국가적 전환

결혼 이후의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국가적으로도 이중성을 띤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초지역적, 초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유보한 영구귀국 계획을 포기하고 영구화된 이민생활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먼저 이러한 혼성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업적 진출이나 체류연장에 따른 행정적인 번거로움 등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독일국적 취득과정에서 이러한 혼성정체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자녀들의 경우에는 직업적 진출을 위해, 그리고 이들은 체류연장에 따른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독일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독일국적 취득과정에서도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식구들이, 다 독일 시민권으로 바꾼 지가 오래되잖아. (...) 옛날에는 노동허가를 2년씩 처음에는 1년, 그 담에는 2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받아 놓으면 좋지.(D)” “우리도 (국적을) 바꿨어요, 한 10년 됐나? (...) 대사관 뒀 5년 만에 한 번씩 하기도 귀찮고 해서.(C남편)” “우리 큰 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 시험을 보기 직전에, ‘아버지, 이 독일국적을 얻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가 꿈이 검산데 검사는 공무원 아녘니까? 아, 외국인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독일국적을 받았고.(F남편)” “큰 아들만 독일 Pass(신분증)고, 근데 우리는 구태여 독일 꼭 받아야 되는지. 뭐 안 받아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J)”

따라서 이어 이러한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면, 독일국적을 취득한 경우 독일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인 귀속감은 이들의 심리적, 일상적 귀속감과는 불일치를 이루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귀속감 간 불일치는 소수에 불과한 한국국적 소지자에게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독일국적 취득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독일인이나 심리적으로는 한국인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독일이나 독일인, 독일문화에 친밀감을 갖는 반면, 한국이나 한국인, 한국문화로부터는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는 불일치가 나타나는데, 한국국적 소지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한국인으로 인식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독일국적 소지자의 경우에서처럼 독일이나 독일인, 독일문화에 친밀감을 갖는 불일치를 보이는,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편의에 의해서 내가 국적을, 우리가 바꿨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고향은,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또 확대해서 한반도일 것이고, 나의 유년시절의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낙원은 내 고향이고.(C남편, 독일국적)” “중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갖고서는 ‘내가 무슨 한국 사람이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갖고 저,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지 이렇게 살다보니까는, 또 나름대로의 편리성도 있는 거고, 그러고 우리 사실적으로 말해서 독일은 제 2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 지금은 물론 뿌리는 한국이지만은 제 원천지는 지금 여기잖아요, 제 2의 고향이기 때문에. (...) 여기가 내 자녀들이 자라는 데고, 내, 나 자녀를 키워줬던 데고 (...) 제가 가서 그 뭐라 그럴까? 여행자로, 어 한국을 가갖고서는, 우리 나름대로 조국이니깐 그 그런,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거기서 저기 거주할 생각은 없어요.(I, 독일국적)” “한국 사람들 또 한, 몇 집 살아요, 여기는. 한 열 집 정도는 살 거예요, 조리, 조리, 많은 편이죠. 자주 보진 않아요, 다들 일 다니니까. 그래도 한 번씩 전화통화 하니까, 도리어 여기가 내 고향같아요. 예, 자주 안보지만, 도리어 내가 fühlen(느끼는)하는 게, 도리어 여기 내가 더 고향이야. 한국은 정말 내 동포들 사이에서 내가 이방인이더라니까.(G, 한국국적)”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은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는 ‘제 3의 공간(third space)’(Bhabha, 1990: 211; Kaiser, 2006: 33; 재인용)에 위치해 있는 초국가적 중간인인데,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닌, 따라서 어느 한 쪽에서도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실패한 어중간한 이민자라기보다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독일인이기도 한, 따라서 양 쪽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더 많이 내포한 이중문화적 초이민자들이다. 특히 이민자들이 비이민자들에 비해 더 광범위한 가능성과 기회를 갖고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도 내 고향이지만, 가면은 또 이쪽으로 오고 싶고 이제 그 중간 있잖아? 그런 것 같애. 한국 가서도 완전히는 못 살고,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지. 내가 완전히 간다, 나는 없어, 못할 것, 안될 것 같아.(E)” “지난 부활절에는 애가 중국 Shanghai(상하이)를 갔, 몇 일간 갔다 오더라고. 그때는 개인 Urlaub(휴가)로 가는데, 바로 교포 2세대 중에 이제 한 친구가 독일 회사로 Shanghai에 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애들을, 가깝게 지내는 몇 놈을 초대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 애는 여기 또 V(부모집이 있는 도시명) 오면, 옛날 지 독일 친구들 가가지고 밤새고 들어오고, 그래서 바로 옆집 사람이, 이 옆집 사람 공무원인데, 우리 X(아들)를 부러워해. 좋다, 저, 재는 말이야, 독일에 살면서 지 엄마 나라, 지 부모의 나라, 한국 문화, 어느 가족이 있고 하니깐, 벌써 양쪽에 그 소위 독일에서 Möglichkeit(가능성), 가능성이 독일 사람보다 하나 더 많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더라고.(C)”

즉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소외된 이방인의 삶을 산 동시에, “외국인인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그냥 나”(C)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도 한, 독일에 ‘재(Anwesenheit)’하면서도 ‘부재(Abwesenheit)’하고, 한국에 부재하면서도 재하고, 한국을 방문하여서도 또 독일에 재하는, 재와 부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순성(Giddens, 1996: 32)이 특징인 ‘변증법적 주체(dialectic agent, 박준규, 2003)’로서, ‘사이의 파워(interstitial power)’(Flynn, 1997: 312; Kaiser, 2006: 37: 재인용)를 발휘하며 생활하고 있는 초지역적, 초국가적 초이민자들이라는 것이다.

5. 결론

재독한인1세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변화과정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재구성한 결과, 이민 초기의 가치관은 집단주의 중심적 혼성성을 보였는데, 이민생활과정에서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한편, 이민 초기의 정체성은 단일지역적 정체성이었는데,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도 전환되어, 초지역적 변화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먼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국가간 이동을 통해 노동이민생활을 한 본 이민사주체들은 이민 전부터 자신들의 출신국 사회에 팽배한 집합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만이 아닌, ‘나’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적 가치관도 부분적으로는 주장하며 혼성가치관에 따른 생활을 했던 능동적인 행위주체였다는 분석결과는 거주국 사회에서는 물론 출신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행위주체성에 주목한 노동이민자들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이민자들, 특히 노동이민자들은 이민 이전부터 동시대 비이민자들에 비해 행위주체성이 강한 능동적 주체였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행위주체로서의 이들은 이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억눌러야 했던 초기의 집합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을 '나'를 발휘할 수 있는 개인주의 중심적 혼성가치관으로 전환시켜 나갔던, 제 3의 간공간에 위치한 초이민자들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간공간적 존재의 독특성, 즉 혼성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노력이 필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셋째, 그런데 이러한 간공간적 존재인 초이민자들은 출신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양 사회에 귀속되는 동시에, 양 사회로부터 탈귀속되기도 하는 모순성 속에 존재하는, 새롭게 발견된 '지구적 구성체(globale Konstrukte)'로서의 변증법적 주체라는 분석결과는 기존의 상징으로서의 국가나 실제로서의 지역에 고정된 이분화된 공간 이해로부터 탈피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 3의 공간인 간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함의와 맞물려 귀결된 실천적 함의는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이민자들이 행위주체성을 갖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은 타자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방향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즉 거주국 사회로의 비통합이 전제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은 한편으로는 타자성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성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하는 실천 초점의 복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간공간에 위치한 초이민자들이 발전시킨 혼성적 가치관의 독특성을 이해한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다른 인종이 섞인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나타나듯, 혼성이나 혼성물에 대한 기존의 부정일변도의 의미부여로부터 탈피하여 긍정적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의미부여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혼성성은 "기존의 관습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형태와 결합되어 새로운 관습이 만들어지는 것"(Pieterse, 1995: 45; 박준규, 2003: 227; 재인용)을 의미하는 바, 새로운 현상이 아닌, 이미 이전부터 존재한 혼성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아울러 이러한 초이민자들의 혼성적 가치관은 제 3의 간공간에서 구성되고 있고, 이러한 구성체는 귀속성과 탈귀속성, 지구성과 지역성, 재와 부재가 서로 교차하는 변증법적 주체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모순성을 이민주체의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출신국과 거주국의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 함의로는, 고향지역에 고정된 초기의 단일지역적 정체성이 독일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이중지역적 혼성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이중지역적, 이중국가적 혼성정체성으로 초지역적, 초국가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이러한 초지역적, 초국가적 혼성정체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본 이민사주체들의 초지역적, 초국가적 혼성정체성은 출신국인 한국사회와 거주국인 독일사회에 귀속되기도 하고 동시에 탈귀속되기도 하며, 부재하면서도 동시에 재하기도 하는 모순성 속에서 구성되고 있는 바, 초지역적, 초국가적 간공간에 위치한 이러한 디아스포라로서의 유목적, 유동적 독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함의와 맞물려 귀결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디아스포라로서의 혼성정체성은 출신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 중 어느 한 쪽을 양자택일하는 배타성이 아니라, 양쪽 모두

를 포괄하는 확장된 가능성이 그 특징이라는 분석결과는 복수(이중)국적에 대한 법적 인정이 양쪽 사회 모두에 요구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독일에 뒤이은 우리 한국의 국적법 개정안은 제한적이거나 복수(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¹³⁾에서 이출민에게 뿐만 아니라 이입민에게도 진일보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도 해당 이민자들로 하여금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이민사주체들의 혼성정체성으로의 변화는 상상에 터를 둔 국가정체성보다는 고향의 실제적 이미지와 맞물린 지역정체성이 초지역적 및 초국가적으로 분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출민을 비롯한 이입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국가정체성보다는 지역정체성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숙인. 2000. “재한인의 아이덴티티: ‘제3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내산한상복 교수 퇴임기념논문집, 서울: 소화출판사.
- 박준규. 2002. “‘미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아이덴티티”. 『역사비평』 58(봄호): 300-321.
- 박준규. 2003.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한국문화인류학』 36(1): 219-245.
- 양영자. 2008.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7.
- 양영자. 2009. “후기노인들의 역사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3): 255-281.
- 오수성·손승남·김양현. 1998. “재독 한인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의 문제”. 『현대사회과학연구』 9: 407-436.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이동렬. 1998. “개민주의 사회는 우리의 이상향인가?”. 『정신문화연구』 21(1): 222-228.
- 이수자. 2006.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6(2): 191-228.
- 이인정·최해경. 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파주.
- 이종득. 2003.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농장생활(1905-1909)을 중심으로”. 『서어서문연구』 28: 693-715.
- 이채문. 2008.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초국가주의적 관점.” 『한국지리학회』 14(2): 141-158.
- 전형권. 2006.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해석”.

13) 이입국인 독일에서나 이출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독일국적이거나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속인주의와 단일국적주의에 따라 모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2000년부터 예외조항을 허용함으로써, 복수(이중)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는데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0), 한국도 2011년 1월부터는 올 4월 개정된 국적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외국인인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보다 용이하게 복수(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국경제인터넷신문, 2010).

- 『한국동북아논총』 38: 135-160.
- 전형권. 2007. “일본의 보수화와 재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 『한국동북아논총』 43: 101-130.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파독광부, 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 최영호. 2008. “재일교포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韓國史研究』 140: 67-97.
- Anderson, B. 1992.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Giddens, A. 1996. *Konsequenzen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Glick-Schiller, N., L. Basch and C. Blanc-Szanton.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pp. 1-24. in *Towards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edited by N. Glick-Schiller, L. Basch and C. Blanc-Szanton.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Band 645.
- Kaiser, M. 2006. “Die Plurilokalen Lebensprojekte der Russlanddeutschen im Lichte neuer sozialwissenschaftlicher Konzepte.” pp. 19-59. in *Zuhause fremd. Russlanddeutsche zwischen Russland und Deutschland*, edited by S. Ipsen-Peitzmeier and M. Kaiser. Bielefeld: transcript Verlag.
- Mayring, Ph. 2002. *Einführung in die qualitative Sozialforschung*. Weinheim: Basel: Beltz Verlag.
- Schütze, F. 1983. “Biographieforschung und narratives Interview.” *Neue Praxis* (13): 283-293.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pp. 78-117. in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Neue Beiträge und Forschungsperspektiven*, edited by M. Kohli and G. Robert. Stuttgart: Metzler.
- Schütze, F. 1987. *Das narrative Interview in Interaktionsfeldstudien: erzähltheoretischen Grundlagen*. Teil I: Merkmale von Alltagserzählungen und was wir mit ihrer Hilfe erkennen können. Hagen: Fernuniversität.
- Schütze, F. 2006.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 pp. 206-237. in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edited by H.-H. Krüger and W. Marotzki. Wiesbaden: VS Verlag.
- Smith, M. P. and L.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von Felden, H. 2003. “Biographische und ethnomethodologische Forschung als Analyseinstrument für die Konstruktion von Geschlecht.” *Zeitschrift für qualitative Bildungs-, Beratungs-, und Sozialforschung* 4(2): 261-280.
- 한국경제인터넷신문. 2010. “복수국적 내년부터 제한적 허용”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42748131>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0.
http://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Migration/Staatsang/Doppelte_Staatsangehoerigkeit_Mehrstaatigkeit.html

Wikipedia, 2010. "Wertvorstellung"
<http://de.wikipedia.org/wiki/Wertvorstellung>

A Biographical Study on Changeprocess of Values and Identitie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German Females in Germany

Yang, Yeung-Ja
(Kyungnam University)

Through the biographical approach, the current research purports to reconstruct the Changeprocess of values and identities on the lives of the first-generation Korean-German females in Germany from the transnational perspective. 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using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Schütze's autobiographical-narrative interview and Mayring'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on the onset of emigration, their values centered around hybrid collectivism. Their life in the process of emigration was characteristic of a shift to hybrid individualism. Furthermore, the life at beginning of emigration was found to be characterized by a singular regional identity. The process of emigration was shown to mark the conversion into dual identity, dual regional and dual national.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emigrants' welfare were finally offered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process of values and identities changes in their life.

Key words: first-generation Korean-German (females) in Germany, work migration, hybridity, hybrid values, hybrid identities, transnationalism, biographical research

[논문 접수일 : 10. 05. 18, 심사일 : 10. 05. 27, 게재 확정일 : 10. 06. 24]